



조선인민군 소장 김 단 선생

김 단 선생은 1912년 4월 29일에 원동변강의
누도 하바롭스크 시 주변에서 멘논인의 가정에서 탄생하
시였다. 그후 1918년에 김 단 선생의 부모들은 하바롭스크
에서 떠나 무부리스크시로 옮겨갔다. 이 도시는 당시 한인들
은 소왕령이라고 불렀던바 그 당시 한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도시였다. 김 단 선생은 이 소왕령에서 소학도, 초급도 마감을
하였으나 부모님들의 경제난으로 학의다라 임시 육상생활
을 중지하고 1928년 부터 1930년 까지 2년 동안 부
모님들과 같이 "센두히케스" 농업조합에서 일하시였다.

1

“신두히테츠” 협동조합은 두슈리스크 시 에세얼지앙게 ²
 떠러러있는 원종변강 한 까이구덕에 외재하여 있었다.
 2년간 동안에 몇년간 동안 돈으로 김단선생은 1930년
 에 우후리시에 가서 한연사법전문을 학교에 입학하였다. 김단
 선생은 사전에서 공부할시 다른 학생들에게 비하여 벌써 성
 년으로 부터 공부도 우수하게 하였으며, 특히 사회사업에서 용
 모를 보잡하여 조직하는 사업에 항상 앞장서서 나가군 하
 였다. 이것을 원종변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일이 좀 때늘어 지면
 항상 고공학생들과 사전학생들을 파종, 레호사업과, 가운데 연
 감과 파기에 동원하였던바 이런사업에서 김단선생과 같은 성
 년 학생들의 필요하였던 것이다.
 김단선생은 1933년에 사권을 두루한 성적으로 마감하고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는 “신두히테츠” 협동조합 소공부를
 선생으로 파견 되어 1936년까지 일하시었다.



사진은 1946년에 김단선생이 경희부 흥역관으로 제설시 찍은것이다.

1936년에 김단 선생은 유선리교육부의 파견을 받아 3
원동에 유일하게 존재한 한인 사대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대는 블라지워브도크시예(당시-
한인들은 해삼시라고 칭하였음)이었다. 김단 선생은
사범 대학에서 일년간 공부하고 1937년 한인들의 강제
이주와 관련하여 카자흐 공화국 코슬몰다시에 보내되었다.
김단 선생은 사대 3학년을 완수하고 가정의 경제관계로
연타며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1939년에 우즈베크
공화국에 이주하여 하슈켄스주 교육부의 파견을 받아 중
철칙 구역 카라슈 초등학교에서 일년간 일하신 다음 역시
중철칙 "북극 등대" 협동조합 위원장의 초원을 받아
동 조합 문화부장 겸 구락부주임으로 1940년부터 1945년
까지 일하시었다.

김단 선생은 1945년 8월에 초병되어 원동변강
"소련군 제 1 전선에 도착하여 제 25 군단과 함께
조선 해방전에 군사 흥역원으로 참가하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 당에 들어서자 김단 선생은
소련군 25 군단 정치부의 파견에 따라 북한 함경
북도 응기시 민전사령관의 책임 흥역관으로 일년간
일하시고 1946년 6월부터 군단 정치부 제 7 부흥
역관으로 1948년 말까지, 즉 소련군을 북한에서
철퇴시킬 때까지 일하시었다.



사진은 김단 소장이 총참모부 특수군부대 정치부장
으로 개설시에 관하 연합부대들의 현지 전후 훈련에 참가하시고
있는 관경. 아울러 좌측 첫번째로 선 김단 소장은 제12교사단
사단장 태윤급 대좌의 환경 설명을 듣고 계심을 촬영한것이다.

소련군이 1948년 12월에 북한에서 철퇴하자 김단 선생은
소련군적에서 제명되어 조선인민군적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국
적도, 공산당적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제
적 되었다. 그후 김단 선생은 북한 정부 내각의 지시에 따라 타
김책 부수상의 비서직에 취임 하시었다. 이 직부는 보통 보기
는 높지 않다고 생각 할수 있으나 김책 부수상이 리행하는 책
임적 범위로 보아서 아주 광범하였으리라 짐대한 책임직 일어
였다. 김책 부수상은 깊은 상식을 소유한 유식한 간부는 아니었
으나, 개성이 선명하고, 정직하고, 간사나 교활성이 전혀 없는
진실한 간부였기 때문에 인민은 김일성보다, 김책 부수상을
더 신뢰하였다. 김책 부수상은 주로 산업로 지도하였으나, 그
러나 군무자 회의에서나 농업 경리 중요한 회의에서 그의 결론
은 실생활을 품은 지식으로 우려러나오는 말이며서 인민은 군

게 믿었다. 과거 출신으로 보아 김책 부부상은 소련군 88 여단
 에 계실 때에도 김일성 보다 높은 직위에서 사임하시었고, 또
 동북에서 항일 빨간지산 운동을 하실 때에도 김일성은 원대나
 사단법위에서 활약하였으나, 김책 부부상은 집단군 정치위
 원으로 김일성위의 지도적 위치에 계시었다. 해방후 조선에
 나와 사임하시던 부경장군, 김응장군, 리양조장군, 리익선
 장군, 박일우 장군, 장평산, 방호산 장군들로 전부다 김일
 성의 본류에 의하여 아래하계 복음을 애기했으나, 그분
 들은 전부다 진정한 장군들이었으며 김일성 보다 두터운
 3계단 위에서 지도하던 간부들이었다. 때문에 1950년
 에 동족상잔이 시작되자 김일성씨는 백동, 만포부근, 만주
 국 경역에 들어 앉아 있었지만 직접전선을 지도한 분들은
 이상에 현저한 분들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김일성은
 모든 전선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 하나씩 철적
 강박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확증된 증거는 없지만, 또
 잃을 수로 없지만 여러 신입할 만한 고급간부들이 여론
 에 의하면, 김책 부부상이 1950년 12월 31일 날 밤에
 방에서 잠을 자다가 제 곁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나 그것이 다 김일성이 조종한 암살이며, 허가이
 "자살"과 유사한 헛소문이라고 하였다. 김단 선생은 비
 서였으나, 그가 설날만이라도 하여 동북들과 반듯게 놓고
 아침에 자는데 홍삼모복에서 흥고하기를 김책 부부상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숙소에 가보니, 그 장소에는 연개
 시고 중앙 권의소에 안치할 것을 볼 분이었다고 하였다.

기책 복수상이 사랑한속 김단 선생은 약 일개월
 간 부직으로 계시다가 1951년 2월 중순부터 105 군위
 탄크 사단 정치부장으로서 임명되었다 원래 105 군위
 사단 정치부장은 소련 출신 안동우 공화국 영웅 군위 대위
 였으나 안동우 대위는 1950년 4월중순에 우월시 쟁취
 를 위한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므로 그
 에게 군위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던 것이다 105 호
 군위 탄크 사단은 유경우 소장의 지휘하에 영웅적
 으로 서울로 쟁취하고 수원, 평택, 천안, 대전 까지
 점령한후 랑동강 계선까지 나갔다가 후방 평교개 전투
 에서 제 10 탄크 사단과 같이 기쁜 주먹을 다 잃고
 허는수없이 신의주까지 후퇴하다가 전군에서 영
 영 퇴하고 다시 남은 기술기재들을 수습하는 한편
 사련으로 부터 기술기재들의 보충을 받아 또 다시 꾸려
 놓은 전향부대였다 김단 선생은 105 호 사단에서 1952
 년까지 정치부장으로 계신후 동년 2월말달에 원민군
 후방총국 기술기재 계획부 부장으로 1954년 5월까지
 일하시고, 1954년 6월 부터 1956년 6월까
 지 원민군 농심부 특수 정치부 즉 농심12부에 직속한
 특수 부대, 구별대들을 지도하는 정치부장으로 계시다가
 1956년 10월부터 1958년 9월까지 조선원
 민군 제 4 군단 군사위원으로 계셨다 사군단이
 위치하고 있는계선은 수도를 방위할 목적에서 증대하고 6

인정할수로 있으나 사실 그런 위험성은 당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김일성의 상상에서 나온 존재로 하지 않는 "위험성"이었다.
 4군단은 그 배치지역이 평양 서쪽방향으로 동해바다까지, 또
 남으로는 대동강, 북으로는 청천강이라고는 하였으나 사실은 남포시,
 강서 제강소, 용강, 온천, 용림 황철 등이 중대한 지리 경계각 요소
 라고 인정할수있다. 그런데 그 당시 "위험성"이란것을 김일성
 이가 기다린것은 외부의 그것보다 아마 내부의 그것을 더 두려
 워 한것은 사실이였다. 국내파를 박금철이와 리호준을 선두로하
 여 침산할시, 박금철이는 남한정복과 내홍합여가지고 남한군대
 를 동원하여 삼활선을 넘어 북벌할계획이였다고 적을 써서 침산
 하지 않았는가? 4군단 역시 비열하게 허무맹랑하
 게 적을 조작하여 내어 그간부들을 전복다 청산하였던것이다. 그
 "적"란것은: 그당시 군단장에 장평산, 군사위원회 최학일이있
 었던바, 단 중앙위원회 지도원들이 현지-강서 제철, 용강기계
 공장, 황철 제강, 각 군소재등에 자위대들을 조직하여 놓고
 전복다 양악의 시기면 밀레히 동원하여 쌍부에서 공격하여
 푸는 무기를 들고 수도 평양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소탕할것이라고
 지도한 다음에, 얼마 지나간후, 이것을 도록 돌려, 너의 자위대
 들은 4군단 반당 공파분자들의 지도하에 푸는 평양을 전
 복하라는 반당, 반정부 군사적 반란계획이라고 추측기 완을
 백 활십으로 돌려 놓고 중국에서 나오신 유령반군부들을 전
 복다 사정없이 청산해냈다. 무정장군은 벌써 1950년 12월
 기에 처단당 하였지만, 이시기에는 야적유식한, 학문에서로, 또
 군사적 면에서로 김우, 장평산, 리익선, 박송파 리림 선생

전북다 봉당 평산된 활경을 권속하여 4군단 군사 8.
위원 최학일 (박정애 오빠) 을 대신하여, 군사위원
으로 김단 선생은 임명받아 1956년 시월에 취임
되었다. 높은 직위에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군단이 중앙
으로 부혀 평가받기를 반당종파 분자들의 집안으로 평가
된 군원함부대로써 여지없이 허바닥 밑항까지 거하
된 사기를 다시 고취시키자면 어란 제란한 힘을 가지
고는 불가능이 아니었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허외적 실험을
꾸려 지도자들로 칭찬하였으나, 하부근무자들은 그것을 알
바 없어 참자기들이 종대한 죄를 범한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누구든지 보는사람마다 자기들을 죄인으로 인정한
다고 생각한것만 사실이었다 그런데 김단이 임명 되어
4군단에 간시기가 벌어 쏘련파는 대대적으로 칭찬되며
가는 때였다. 김일성의 권책은 아무간교하여 쏘련파 다주
높은 장군들로 몇몇이 가고서는 그대신 아래 몇몇을 늘
여 임시로 추켜 두었다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높을 필요없는 도를 취하여 내치곤 하는것이 다 어떻
게 총령치극 공장 최중학이 목어 때러져 함흥에 유
형사리 내려간다음 김단어와 김학원에게 소장 군사
침호를 수여 하여 각각 군단 군사위원으로 추켜 세웠
다가 이사람은 저사람도 다 때어 버렸던것이다.
이렇게 김단은 4군단 군사위원으로 즉 당-정권
대도를 약 일년 풀하게 되다가 1958년 초에 철적

하여 소년 사령부 총참모부 공중부장으로 강직시켜 내려보내
 였기에 하늘을 높이 김단 선생은 총참모부군관들의 여러
 가지 식량공급부장으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당권권대풍가
 식량공급부장으로 떨어져 내려와 보니, 조선속답에불
 기를 밝는 놈이 매가 아파서 보다도 남의눈앞에서 모욕
 당하는것이 더 괴롭하다고, 일은 하자 이런 계속할수있으나
 군사위원이 공급부장의 직물에 내려왔다고 눈송질하는것
 과 회의나 기하로업에서 계속적으로 쏘련다니, 허가이 끌로니,
 쏘련 나대 쏘려자, 판로 쏘려자니 하는것이 매번 귀결에
 들리는때마다 속상까지 출어 내는듯하여 견딜수가 없
 었으며, 또 어떻게 내려가 앉어놓은것이, 더 직물에 계속
 두러는것이 아니라, 이것어 쏘련과 총참의 끌로니 쏘련
 노라는것이 다른 동지들의 예를보아서도 확연 하있것이었어
 다. 김단 선생은 어때에 혼근히 혼로 써서 쏘련에 귀
 국 후속을 하여야 된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김단 선생
 은 본래 참새처럼 영리한 인간으로써, 만약 이런 생각
 을 먹고 싶다는것을 코름당 앞잡이들이 눈치만 채리게
 된다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복한 리복의 귀신어리
 고 말것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아주 깊은 비밀에서,
 아득한 다정한 친구들라도 말하지 않고 품착하였다. 이
 때에 김단 선생에게는 아주 불행한 일이 님쳐오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어 김단 선생이 북한에서 빠져서
 나오는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1958년 말부터

김단 선생과 근 26년간 같이, 아주 다정하게 생활하여¹⁰,
아들 3형제를 낳아 양육 교양하여 삼남의 길에 내세운
그의 부인 영옥이 위안으로 언뜻만 즐날에게서 지냈
다. 김단 선생은 이것을 원인으로 내달면서 1959년 9
월부터 당에 송원을 제출하려 부인의 병치료를 위하여
원칙이 살고있는 소련에 귀국허가를 요청하였다. 그
당국은 김단 선생을 소련에 후방하는 불려는, 배척고 나
빨 달기보다 훨씬 앞서지만, 여사씨 부인이나 동생들
하고, 귀국지 모양으로 돌려보내라 면, 어떤 죄고리가
있어야 되었을까, 이것을 오래동안 찾다가 1959년
9월 10일에 조종당이 응允한다. 소련 대사관에서 수속
을 기다리는 사이에 원칙을 불리하여 중병에 넘어선
영옥 사모님을 자기 아이들로 보지 못하고 김단
선생의 외로운 심세를 보면서 눈물감았다. 어찌에
병석 복환에서 끌어받았고는 절제할 관계로 김단 선
생의 3 아이들은 하는 수 없어 소련 하바롭스크 시에
와 함흥사리를 하여서 공부하였다. 이렇게 김단 선생
은 1959년 10월 29일에 복원을 원하고 1960년 정월
10일에 평양을 출발하여 환북 취진 후 평양 흥남역 소
련 당에 들어가 하바롭스크에 정월 15일에 도착
하여 자기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김단 선생은 조
선 현실에 아주 귀당하게 상식있게 준비된 간병했다
북한에 가실 때에는 조선을 일제하에서 해방하고 영
원하게 조국땅에서 살려고 맘을 먹었지만 전체

조선 출신 간부들이 겪은 그러한 비참했던 수명을¹¹,
씨의 높은 당 회의실에서 비판받을 때에야 자기로
부터 철칙, 강직 당한 조선 출신 간부들의 취지를 알
게 되었으며, 자기가 김일성 당장이 먹발을 막간
감당 하여가며 작은 김일, 현어반, 현을, 김철의
장황병 등 간부들에 대하여 죄명으로 되리든 않는
"죄"를 찾아내려고 되리든 알을 뒤쫓리 하여
이리-저리 돌리복치던 일이 아주 조인스럽게 생각되
었다. 그러나 김단어는 정학중이나 유성철어처럼
중국 정통운동에서의 훈제어변 혁명을 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일하시다가 추방되어 되돌아온 조선파간
부들이 타슈켄트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김단선생
은 조선 귀환 초기에는 타슈켄트에 도주하려고 생각
하지 않고 워싱턴 하바롭스크 시에서 살려고 하
였으나 그 선생의 생활 양식, 행동상풍습이 전
혀 근처아 언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김단
선생은 하바롭스크에서 약 일년간 지내신 다음
에 하바롭스크 난방시설 공장 공급부장 직책에서
나와 타슈켄트 시로 이주하여 오게 되었다. 타슈
켄트에도 처음자 외국 장기간 출장간부로써 모든 생
조건을 보장 받은 다음 1961년복 - 1965년까지
시내 핵시 사업소에서 핵시운영 사업 기술공 평
기사로 일하시었다. 자동차 기술 부문에서 생전 //

일하여 본 경험없이 없는 김선생은 핵시사업소에서 오래
 동안 일하시지 못하고 1964년 초에 "레닌기치" 신문을
 신문기자로 취직하시며 1970년까지 일하시고 다음
 년경 생활로 넘어가시었다. 김선생은 하마콥스크에
 서 하뉴겐으로 이사하여 도시와 모든 생활 문제가 국
 가로 부터 잘 해결되자 1961년에 하뉴겐은 시내에
 서 살고 계시며 아주 암시롭고 연좌한 년자들에게 장
 가를 가게 되었으나 그 녀의 심령은 밖 웨라라고
 불렀다. 이 밖 웨라 양은 북한에 가서 전기공업성 부장
 으로 계시던 김영삼씨 부인 - 박은희의 처동생 되는
 불이다. 김선생은 년경 생활에 넘어가신후 4년
 이 지나자 심장 라비병으로 1974년 7월 23
 일에 하뉴겐에서 별세하시었다. 지금 현재 밖
 웨라 사모님은 김선생의 아들 3형제, 자기
 딸 한명, 네명의 자손들에 대하여 걱정하
 여 주려, 조선의 흥일을 기다리고 계신다.